■ 민족문화연구 제99호(2023.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41-360.
http://doi.org/10.17948/kcs.2023..99.341

조선후기 새로운 생활 신앙 염원의 단면(斷面)
—유・불・도 관련 민화를 중심으로—

심명주(沈明珠)*, 김취정(金翠貞)**

목 차

1. 서론
2. 조선 후기 종교적 경계의식 해체의 단면
3. 민간의 새로운 생활 신앙 염원과 신종교 출현의 단초
4. 소결

국문초록

본고는 유불도의 내용을 함께 담은 민화를 단초로 조선후기 민간에서 발생한 새로운 생활 신앙의 염원을 살펴보았다. 19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종교와 관련된 몇 점의 민화 작품은 다른 성격의 다양한 종교적 내용이 하나의 작품 속에 어우러져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종교적 융합 도상의 된 작품으로 본고에서는 조선 중기 유입된 도교 내단서인『성명규지』에 주목해 보았다.

명대에 저술된 내단서인『성명규지』는 유・불・도 합일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저서에 수록된 삽화들이 민화로 제작되어 전해지고 있어, 유불도 삼교가 융합된 민화 제작에 영향을 주었을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성명규지』의 민간 신앙에 대한 영향을 고찰함에 있어 본고에서는『성명규지』삽화의 민화 제작의 배경으로 조선후기 사회 일각에서 나타난 종교적 경계의식 해체의 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이와 함께, 본고는 유불도 습합 현상을 보여주는 이인문의 〈유불선도〉와 민화 〈삼불제석도〉, 〈비승도〉, 〈만법통일도〉를 대상으로 조선후기 종교적 경계 의식의 변화를 고찰해 보았다. 도상 고찰의 결과, 조선후기 사대부 계층에서 시작된 종교적 경계의식의 해체는 민간차원에서 생활 신앙의 염원으로 심화되고, 이러한 새로운 생활 신앙의

* 제1저자, 대만 양명교통대 博雅書苑 겸임교수.
** 공동저자, 고려대 강사, 서울대 박물관 객원연구원.

염원이 유불도 합일, 근대 사유의 수용, 민중 운동의 성격을 지닌 동학과 증산교 탄생의 토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주제어: 성명규지, 삼교일치, 민화, 유불선도.

1. 서론

본고는 유불도의 내용을 함께 담은 민화를 단초로 조선 말기 도교를 둘러싼 종교적 경계의식 해체 양상과 새로운 민간 생활 신앙을 염원한 조선 후기 사회문화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 중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 불, 도교와 관련된 몇 점의 민화작품은 당시 민간의 신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을 시사한다. 이들 작품에는 유교, 불교, 도교의 내용들이 함께 그려져 있고, 심지어는 조선 후기 유입된 기독교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조선 후기 민간에서 일어난 종교 의식과 관련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즉, 다른 성격의 다양한 종교적 내용이 하나의 작품 속에 어우러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당시 사회에서 어떤 문화적인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유불도와 관련한 복합적인 내용을 담은 민화 제작 배경의 원인을 당시 민간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생활 신앙 탄생의 소망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닐까 전제해 보았다. 이는 유사한 시기에 신종교인 동학과 증산교, 이어서 원불교가 탄생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전혀 근거 없는 전제가 아니다.[1)]

관련한 의문점 해결을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제2절에서 논의의 대상인 민화작품의 제작 배경으로 조선후기 사회 일각에서 나타난 도교를 둘러싼 종교적 경계의식 해체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민화는 실용과

1) 최준식,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2, 사계절, 2006, 145-272면. 제2장 〈신종교편〉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신종교는 한국인에 의해 새롭게 창도된 것으로 동학을 그 시발점으로 하며, 동학이나, 증산교, 원불교, 대종교 등은 비록 그보다 앞선 전통인 민간신앙, 무교, 유교, 불교, 도교를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지만, 그 종교들의 단순한 연장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한다. 신종교는 이들을 바탕으로 하여 기성 종교적인 요소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 냈고 우리 민족의 정신적 주체성을 찾으려 했다.

생활의 목적에 따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민간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다. 익명의 화가가 그리는 민화는 사회의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적인 현상을 실용적인 용도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꾸밈없는 시각언어를 사용해 표현하므로 당시의 사상과 생활 종교 등을 여과없이 전달하여 이해를 쉽게 만드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민화 작품들이 보여주는 복합적인 종교적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 의식의 변화 양상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종교적 경계의식의 변화양상은 도교가 유교, 불교와 어떤 방식으로 절충하고 습합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사대부 중심의 내단 도교와 서적, 그 중 본고는 성명규지를 대상으로 조선 후기 지식인의 관심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본고가 특별히 성명규지를 주목해 본 이유는 성명규지가 담고 있는 유불도 합일관의 갖는 내용상의 독특함과 함께 성명규지에 수록된 삽화가 민화로 제작되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이루어진 성명규지 삽화의 민화 제작이 갖는 의미를 민간도교의 내용과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제3절에서는 본고에서 다루는 민화작품이 보여주는 새로운 신앙의식을 검토해 보고 핵심적인 사상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이 핵심적인 사상은 사대부 내단 문화의 기층 전파(이인문의 유불선도, 사명대사), 불교의 도교 습합과 변용(삼불제석도), 신과의 감응(비승도), 종교적 통합(만법 통일) 등의 이상적 신앙 세계에 대한 염원이라 정리해 볼 수 있다. 당시 민간에서 형성된 새로운 신앙에 대한 염원은 유불도 합일, 근대 사유의 수용, 민중 운동적 양상의 성격을 가진 동학과 증산교 탄생의 토양과 양분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론해 볼 수 있다.

2. 조선 후기 종교적 경계의식 해체의 단면

1) 유교 사회속의 도교 문화: 절충과 습합

조선시대에 들어서며 도교는 국가의식으로서의 위치는 물론 정치, 사회적인 중요성도 상실해 갔다. 조선 태조는 왕이 되기 전에 태백금성 같은 별에 제사를 지내거나 왕이 된 후에도 전국의 성황당에서 제사를 올리게 하는 등 도교 의식에 관심을 가졌지만 유교적 이념과 이에 따른 정치적 질서를 추구하던 유신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조선 초 시작된 도교 정리작업 중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복원궁을 비롯한 도관의 폐쇄이다. 10여개 남짓 남아있던 도관들이 소격전(昭格殿)만을 제외하고 모두 폐쇄된다. 소격전은 후에 소격서(昭格署)로 강등되며, 중종대에 들어 조광조가 정권을 잡으며 소격서마저 혁파된다. 그 뒤 임진왜란을 겪으며 건물이 소실되어 다시 문을 열지 못하게 된다.[2)]

조선후기에 들어서며 공식적인 국가행사로서의 도교 의식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우리 나라의 도교는 역사상 공식적으로 교단이 형성된 적이 없으므로 그 실체를 파악하는 일은 다소간 요원하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모든 영역에서 '도교적' 요소들은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양란이후 국가 정체성의 위기속에 정치적 혼란기에 살았던 조선 후기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도교의 내단 수련을 중심으로 한 양생법과 관련 서적이 크게 관심을 끌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3)]

민간신앙과의 연계 측면에서 도교의 양상은 임란 이후 관제 신앙의 유입으로 관왕묘가 설립되는 등 도교 신앙이 새롭게 형성되는 상황이 전개되였다. 이 관왕묘는 명나라 무신들이 임란을 계기로 조선에 오며 설립한 것인데 조선 조정도 이 신앙을 수용하여 선조대에 남관왕묘를 설립한 바 있다. 그 후 시전의 상인, 도시의 남녀들이 이곳에 와 기도하고 향을 태우는 행렬이

---

2) 『東國輿地勝覽』, 소격서는 한성부 북부 鎭長坊에 있었다. 이 곳의 현재 위치는 삼청동으로 三淸殿에서는 七星・玉皇・老君・天尊・帝君・閻羅 등의 도교신을 모셨다.

3) 김낙필, 『조선시대의 내단사상』, 대원출판, 2005; 최일범,「조선시대의 내단사상」, 『철학연구』 49, 철학연구회, 2000; 최일범, 「조선성리학에서 양생(養生)과 수양(修養)」, 『도교문화연구』 42, 한국도교문화학회, 2015, 37-64면; 양은용, 「조선시대 수련도교의 전개와 양생사 연구」, 『한국종교사연구』 40, 한국종교사학회, 1996 참조.

일년내내 그치지 않았다고 전한다. 또한 민간과 왕실을 막론하고 인기가 높았던 선음즐교는 관우를 신봉하는 도교 신앙으로 몸 안에 산다는 삼시라는 벌레가 두 달에 한번씩 경신일만 되면 천제에게 인간의 죄를 천제에게 보고한다고 하여 그 날밤은 잠을 안 잔다고 한다.[4] 여기서는 충효 같은 유교윤리를 권선징악적 입장에서 강조하고 실천을 통해 복록과 장수를 누릴 수 있다고 하였기에 소박한 기복적 취지와 실천가능한 규율을 내용으로 하여 민간 대중에게 크게 환영받았다. 이렇게 민간신앙화한 도교의 모습은 북두칠성, 남두칠성 등의 성수와 관련된 행사나 도교적인 민간 사제겪인 판수라는 맹인 점복가가 도교 경전인 옥추경을 읽으며 북을 치며 사람들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 내는 무당이나 사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5]

불교와의 관련성을 보면, 우리 나라의 사찰에는 칠성각이 있어 복을 빌거나 자식 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곳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 또 승려가 불사를 행하고 법요(法要)를 시작할 때 칠성을 청하는 법이 있기도 했으며,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五洲 衍文長箋散稿』를 보면 서울 인왕산의 칠성암에 신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재를 올리고 기도를 드리면 효험이 있다고 하여 과거에 응시할 유생들이 종종 온다고 하였다.[6] 이렇게 불교 사찰 안에 칠성을 모시는 건물이 법당이 세워진 사실로 보아 도불이 습합된 칠성 신앙의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7]

이처럼 조선시대 도교의 성격은 공식적인 위치를 부여 받지는 못했으나, 신분고하를 막론한 사회 구성원의 정신세계와 일상에 스며들어 영향을 끼치며 생활 속에 적절히 어우러진 상황을 볼 수 있다. 또한 도교의 칠성신앙의 경우 종교적 행위공간을 확보하고 있던 불교를 만나 기복의 대상으로 민간에 안착하는 모습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도교는 숭유를 표방하는

4) 李能和, 李鍾殷 譯,『朝鮮道教史』, 普成文化社, 1989, 271-273면
5) 최준식, 앞의 책(2006), 21-141면; 김윤경, 「조선후기 민간도교의 발현과 전개」, 『한국철학논집』 35, 한국철학사연구회, 2012 참조.
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43, 「華東淫祀辨證說」 참조; 김윤경,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도교관 「도장총설」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53, 한국도교문화학회, 2020, 175-198면.
7)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와 민간신앙의 공존 양상 - 산신·칠성 신앙의 불교화」, 『불교학연구』 61, 불교학연구회, 2019, 75-104면.

조선 사회에서 광범위한 계층의 사회구성원들의 정신세계와 신앙세계의 영역을 담당하는 하나의 중요한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광범위한 사회 계층의 생활과 문화에 영향력을 가진 조선시대 도교의 특징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에 유입된 명의 서적 『성명규지』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8] 『성명규지』는 도교의 내단술을 유불도 삼교의 통합관에서 설명하고 있는 명대 저술로서,[9] 조선 유자들 사이에서 읽혀졌고, 무엇보다 『성명규지』에 수록된 도교 삽화가 민화로 제작되어 민간에 유통되었다.

성명규지 삽화가 민화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 바는 난해한 도가 경전의 내용이 사대부계층을 넘어 일반 민중에게 보급되고 받아들어 졌다는 점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내용의 깊이는 지식인들이 받아들였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난해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도교 내단법의 이름을 빌린 건강한 생활을 위한 수련법 정도로 민중에게 전파되었을 것이다. 본고에서 앞으로 살펴볼 유불선 통합의 내용을 담은 성명규지 삽화의 민화로의 모사 및 전파는 민간에서 다양한 종교적인 내용의 융합 아이디어로로 받아들여 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심도있게 살펴보기 위해 조선말기의 유불도 내용을 담은 몇점의 흥미로운 작품을 통해 종교적인 내용이 융합된 모습을 관찰해 보도록 하자.

2) 『성명규지』에 관한 지식인의 관심과 민간 전파 양상

『성명규지』는 명대 중 후기에 저술된 도교 심신수련의 방법인 내단학을 논한 저술이다. 이 책의 저자에 관해서는 대다수 판본에서 윤진인의 수제자로 되어 있으나 윤진인에 관해서나 그의 수제자에 관해 밝혀진 바는 없다. 그 당시 도사들이 이름과 성을 숨기고 활동하는 내력은 도교 내부에 높은 덕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매우 보편적인 일이었으므로 후대 사람들은 윤진인의 제자가 스승의 사상을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10]

---

8) 윤진인의 제자 저, 이윤희 옮김, 『성명규지』, 한울엠플러스, 2005 참조.
9) 김진봉, 「『性命圭旨』에 나타난 性命雙修論」, 『동양문화연구』 13, 영산대 동산문화연구원, 2013, 297-325면.
10) 傅鳳英, 「淺論性命圭旨的作者和成書年代」, 『宗教與民族』 3, 四川大學道教與宗教文化研究所, 2004, 참조.

명대 유행한 내단술은 이론적 체계가 정비되며 널리 퍼졌는데 어려운 용어와 문장으로 된 종전의 단경도서들은 당시의 지식과 용어를 사용하고 특히 불교의 교리를 흡수 함으로써 보다 쉽고 시대에 맞는 해설을 하려는 노력이 생긴다. 그러한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명규지』이다. 이 책은 더 나아가서 그 어느 책보다도 유가의 입장을 많이 반영함으로써 명실공히 유불도 삼교일치의 사상을 원리뿐만 아니라 실제 수련방법까지 실현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상을 삼일이라 하는데, 유불도의 세 가르침을 하나로 보고, 정, 기, 신 세 보불이 하나 되는 진리를 간파한 사상이다. 11)

모두 4권 4책으로 구성된 성명규지는 원-형-이-정의 순서로 편집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수련과정을 잘게 나누어 절을 나누고 그림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제1편 원집은 내단으로 향하는 총론격에 해당하고, 형집의 내용은 내단으로 향하여 출발하는 방법에 해당하고, 이집은 이미 보통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단계에서의 수련방법을 설파한다. 정집은 완성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미 신선, 보살, 부처의 세계로 들어선 뒤의 수련방법을 설명한다.

『성명규지』가 갖는 특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도교의 심신수련을 설명하며 불교 고승의 어록이나 유교 성현의 명언집에서 관련 부분을 인용하며 도교적 방법의 정당함을 입증하려 한 점과 저서안에 모두 54쪽의 삽화를 수록해 성명규지가 표방하는 유불도 일치라는 종지(宗旨)와 수행해 나가며 익혀야 할 절차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도 1] 〈삼성도〉, 성명규지

『성명규지』가 언제 조선에 유입되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다. 앞서 밝혔듯이 조선시대 도교는 공식적인 존립 기반 없이 무속

11) 윤진인의 제자 저, 앞의 책, 4면.

신앙이나 불교와 함께 융합되어 명맥을 이어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 사대부들의 도교 내단술에 대한 관심은 상당했다. 『성명규지』와 관련한 조선의 기록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활동한 김매순, 이규경, 박규수와 같은 당대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의 저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김매순(金邁淳, 1776~1840)은 자신의 논집에서 참동계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 중『성명규지』에 관해 윤진인의 제자가 찬술한 책으로 단학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규경(李圭景,)은 『오주연문장전산고』「도장총설」〈도경〉편에서 『성명규지』를 도경으로 소개하고 있다.[12] 『환재집』에 수록된 '윤사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당대 대표 지식인 환재(瓛齋) 박규수(朴珪壽, 1807-1877)는 『성명규지』 및 당시 도교 내단서와 관련하여 비교적 자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 흥미롭다.[13]

> "『성명규지』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지난번에 형께서 『만신규지(萬神圭旨)』는 아마 별도의 한 책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책이 바로 『성명규지』군요. 단가(丹家 도가(道家))의 서적 역시 많은데 그 책에서 '용호(龍虎)'니 '연홍(鉛汞)'이니 '정로(鼎爐)'니 '오토(烏兎)'니 하는 것들은 모두 비유한 말입니다. 이를 부연하여 설명하고 그림을 그려 형상을 묘사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의가(醫家)에서 '기신(氣神)'・'정혈(精血)'・'음양(陰陽)'・'한온(寒溫)' 등으로 직접 표현한 말이 간략하고도 알기 쉬운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늘 단가의 이러한 어투를 모두 의가의 말로 번역하여 사람들이 쉽게 알고 쉽게 행하여 더 이상 모호하고 맹랑한 의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공동산인(崆峒山人)이 『참동계(參同契』에 주석을 달 때 미처 이런 점을 생각하지 못하였으니 후학으로서 아쉬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세심퇴장(洗心退藏)'에 대해 일찍이 홍노장(洪老丈, ?-?)으로부터 들었는데, 지금 이 책에서 그 내용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의 성대한 뜻은 음식을 조절하고 약을 잘 먹으면 병을 적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것이라면 저 조화옹(造化翁)에게 맡길 뿐이니, 몇 권의 책을 읽은 우리들이 어찌 이것을 구구하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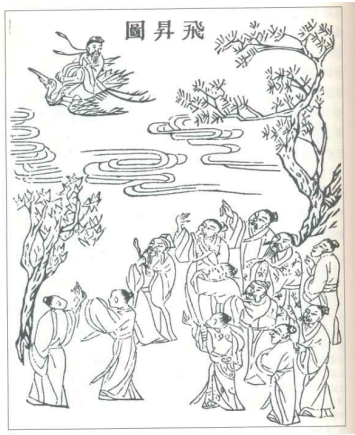
12) 이규경, 박찬수 외 7명 역,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2, 도장류1, 도장총설(道藏總說), 도교(道敎)의 선서(仙書)와 도경(道經)에 대한 변증설(道敎仙書道經辨證說)』, 한국고전번역원, 1977, 참조.

13) 박규수, 한국고전종합DB 역, 『환재집(瓛齋集)』 9, 「서독(書牘), 윤사연에게 보내는 편지(與尹士淵)」, 한국고전종합DB, 1911 참조.

14) 『환재집(瓛齋集)』, "性命圭旨。夙所聞而未覩。昨兄云萬神圭旨。意是別有一書矣。乃卽性命圭旨也。凡丹家書亦多。而其曰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이며 조선 말기 실학자이자 개화사상의 선구자로 문학, 사상, 과학 등 다방면에 중대한 역할을 한 저명한 학자이다. 박규수는 『성명규지』에 관해 과거에 이미 들어본 적이 있으나 이제서야 보게 되었다고 말하며 세간에서는 종전에 『만신규지(萬神圭旨)』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저술 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해 용어를 부연 설명하고 그림을 그려 형상을 묘사하였으나, 의가(醫家)서적의 간략함이나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는 주희의 『참동계』의 주석 또한 어렵다고 말하며, 도가에서 주장하는 장생불사라는 것이 사실은 조화옹(造化翁)의 일이고 인간은 그저 음식을 조절하고 약을 잘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도가의 장생불사에 대해 비과학적이며 허무맹랑하다라는 과학적인 관점을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에 이르는 조선 말기 지식인들 사이에서 내단술을 담은 대표 서적으로 읽혔던 듯한 『성명규지』는 민간으로 전달되기에 이르는데, 『성명규지』에 수록된 삽도가 민화로 제작되어 현재 두 점이 남아 전해지고 있다.[15] 한 점은 성명규지 총론에 수록된 비승도이고 다른 한 점은 이미 신선이나 보살들이 수련을 담은 정집에 수록된 고해도이다.



[도 2] 『성명규지(性命圭旨)』 중 비승도(飛昇圖)



[도 3] 〈비승도(飛昇圖)〉, 19세기 전반, 지본담채, 28×25cm, 온양민속박물관.

龍虎鉛汞鼎罏烏兎。皆譬喩品也。演衍爲說。圖繪爲形。實不如醫家之直云氣神精血陰陽寒溫之簡質而易曉也。每欲取丹家此等說法。一切以醫說翻譯。令人易知易行。而不復爲恍惚孟浪之惑也。注參同契時。崆峒山人未及念到。弟子不能無憾也。洗心退藏。曾從洪老丈聞之。今於此書當益得其說。然默領盛意。在差可少病而已。若夫長存久視。任他造化。吾輩亦讀幾卷書者。豈區區於此哉。”



[도 4] 『성명규지(性命圭旨)』 중 〈고해도(苦海圖)〉



[도 5] 〈고해도(苦海圖)〉, 19세기 전반, 지본담채, 28×25cm, 온양민속박물관.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은 두 점뿐이지만, 추측컨대 더 많은 삽화가 민화로 제작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점의 그림은 책 내에서 가장 앞 부분인 총론과 마지막 부분 정에 해당하며 내용이 크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19세기 전반 성명규지 고해도와 비승도가 조선후기 민화 작품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도가 경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민중들에게 그림으로나마 도교의 내단술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가 생각된다. 다시말해 성명규지가 사대부 계층을 넘어서 전파되고 일반 민중들에게 보급되고 받아들여졌다는 점으로 해석되며, 조선 후기 도교 양생술서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확대되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이러한 유불선 통합의 내용을 담은 성명규지 삽화의 민화 제작 및 전파는 당시 민중들의 신앙 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해 조선 말기에 그려진 몇점의 유불도 관련 민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15) 겨레그림, 『꿈과 현실의 아름다운 동행』, 온양민속박물관, 2008 참조.

3. 민간의 새로운 생활 신앙 염원과 신종교 출현의 단초

조선후기 종교적 소재를 그린 종교를 소재로 한 일부 민화에서 발견되는 특색은 유교, 도교, 불교의 다른 종교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한 그림에 그려져 있거나, 유, 불, 도 세가지 신앙의 개별 요소들이 다양하게 혼합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의 혼합 양상은 무신도에서 많이 보여지는데, 무속에서 숭배되는 신앙에는 도교에서 유래한 성황(城隍), 칠성(七星), 조왕(竈王), 삼신(三神) 등이 종종 발견되며 옥황상제(玉皇上帝)를 비롯한 도교의 제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한다.[16] 그외 도교와 불교, 도교와 유교, 불교와 민간신앙, 유교와 불교 기독교적인 요소가 혼재된 민화도 전해진다. 민화에 속하지는 않지만 조선 후기 화가 이인문이 그린 〈십우도〉에는 유자, 승려, 도사가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도 : 십우도)



[도 6] 이인문, 〈십우도(十友圖)〉, 1783년, 지본담채, 126.5×56.0cm, 국립중앙박물관

이인문이 서직수를 위해 그린 〈십우도〉는 사람과 기물을 포함한 열 가지 벗에 대한 묘사로서 철형서(澈瀅書)·수경편(水鏡篇)·동법필(董法筆)·정종검

16) 김태곤, 『한국의 무신도』, 열화당, 1989; 김태곤, 『한국의 무속』, 대원사, 1989; 정병모, 『그림으로 만나는 한국의 무신』 1,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2004; 조인수, 「조선시대 도교와 민간회화」, 『한국민화』 7, 한국민화학회, 2016, 6-29면.

(正宗劍)·초당시(草堂詩)·석전화(石田畵)·평우조(平羽調)·연의주(緣蟻酒)·화경집(花鏡集)·금신결(錦身訣)을 지칭한다. 그 중 그림 중의 인물들에 관해서만 선별해 살펴보자면 첫번째 철형서는 지팡이에 의지해 마음껏 세상 유람을 했다는 스님 철형대사, 두번째 수경편은 사람의 화복을 물에 비추어 알아낸다는 수경도인이며, 음악에 뛰어났다는 왕표, 중국의 시성(詩聖)으로 불리는 두보(杜甫), 한나라 고조(高祖)의 손자로 방술가(方術家) 수천을 모아 도(道)에 관한 책인 『회남자(淮南子)』를 편찬한 유안(安)일 것이다. 스님 모습의 인물만 철형대사로 추정이 될 뿐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라고 꼭 집어 말할만한 단서는 없다. 그림속의 주인공은 아마 동파관을 쓰고 가슴에 세조대를 맨 인물인 십우의 소개자 서직수(徐直修)일 것이다. 서직수는 자신의 별서인 십우헌을 조성하며 십우도를 부탁한 것이라 전해지는바, 조선후기 사대부의 불교나 도교의 인물에 대해 거부감 없이 생활속에서 자신의 벗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그림이다.

다양한 요소의 혼합 종교의 내용을 담고 민화에는 도교와 여타 종교가 결합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도교와 유교, 도교와 불교, 도교와 불교 및 민간신앙이 함께 나타난 예를 살펴보고 불교와 유교가 함께 혼합된 사명대사도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도 7] 〈맹인도사〉, 19세기, 견본채색, 105.3×60.0cm, 서울 금성당

먼저 유교와 도교의 사상이 함께 나타난 흥미로운 그림을 한 점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 7]은 맹인 도인을 묘사하고 있다. 맹인 도인은 두 동자를 앞세우고 금거북이를 손에 감싸고 있는 형상인데 거북이는 오래 장수하는 신령스러운 동물로 천지의 비밀을 아는 지혜의 상징이 되고, 육지와 바다를 오가는 특성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연결하는 신(神) 또는 신의 사자(使者)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사실로 거북이는 맹인 도인의 신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듯하다. 그런데 도인의 복장을 살펴보면 맹인 도인은 와룡관을 학창의와 함께 착용하고 있다. 와룡관은

당시 사대부들만이 쓰던 관모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중심이 높으면서 세로 골이 진 형태로 유학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착상중 하나이다. 신과 소통하는 맹인 도인이 사대부의 복장을 하고 있는 [도 7]의 도상을 통해 조선 후기 유교와 도교적 요소의 혼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도교와 불교의 습합으로 나타난 칠성부채의 도상을 보도록 하겠다.



[도 8] 〈칠성 부채〉, 한국, 저본채색, 68×22cm, 가회민화박물관.

칠성군은 본래 도교에서 모시던 신이었는데, 불교와 융합하면서 사찰의 수호신으로 수용되다가 칠성신앙이 점차 강화되면서 절에서도 별도의 건물(칠성각) 짓고 모셨다. 도판의 7명의 성군은 모두 불보살의 형태를 띠고 있어 조선 후기 들어 가속화된 불교의 도교 습합 현상과 일상용품인 부채로 제작된 모습에서 종교적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삼불제석도의 경우는 불교, 도교, 민간신앙이 함께 도상화 되어 있는 그림이다.

[도 9]의 경우 불보살 법의의 형태나 색감은 물론 두광의 표현이 전혀 불교적인 느낌이 들지 않고 무속인에 가까운 인상이 든다. 게다가 좌우 두 보살들이 들고 있는 복숭아는 도교적 상징의 하나로 불교와 도교적 요소에 무속신앙까지 혼합된 양상을 보여준다. 우선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삼불제석〉을 보면 복숭아가 그려져있다. 복숭아 도상은 도교에서 복숭아는 불사, 장수의 상징이었다. 도교에서는 복숭아를 신선이 먹는 불사(不死)의 과일이라 하여 천도(天桃), 선도(仙桃) 등으로 불렀으며 『포박자(抱朴子)』에 따르면 복숭아나무에서

나는 진을 뽕나무 재의 즙에 절여 마시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전한다.[17]



[도 9] 〈삼불제석(三佛帝釋)〉, 저본채색, 한국, 71cm×106.5cm, 가회민화박물관.[18]



[도 10] 〈삼불제석도〉, 한국, 목아박물관.[19]

이와 함께,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삼불제석〉의 수인은 아미타구품정인 중에서 중품중생 혹은 하품중생(중생의 근기)을 나타내기때문에,[20] 불교와 도교 그리고 민간의 무속 신앙적인 요소가 골고루 나타난 그림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삼불제석도의 경우는 중앙에 아미타불과 좌우에 관세음 보살과 대지보살을 배치한 그림으로 무신도의 삼불제석표현은 32상 80종호와는 거리가 멀고, 조상의 얼굴을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도판에서 볼 수 있듯이 머리에 고깔을 쓰고

17) 김취정, 「그림 속 복숭아꽃의 상징체계」, 『월간민화』 4, 비주얼, 2018, 78-83면; 강판권, 『역사와 문화로 읽는 나무사전』, 글항아리, 2010, 261-263면.
18) 출처: e뮤지엄, 〈오방신장도〉, 〈http://www.emuseum.go.kr/〉
19) 출처: e뮤지엄, 〈삼불제석도〉, 〈http://www.emuseum.go.kr/〉
20) 중품중생은 하루 밤낮을 계율을 지킨 범부가 죽을 때에 부처나 보살의 마중을 받고 왕생하여 반겁(半劫) 뒤에 아라한과를 얻는 세계를 말하며. 하품중생은 파계하고 악행을 행한 범부가 죽을 때에 아미타불의 공덕을 듣고 80억겁(億劫) 동안 생사에 윤회할 죄를 덜고 정토의 보배 연못에 태어나 6겁을 지내고 연꽃이 피어 법문을 듣고 발심하는 세계를 말한다.

합장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교와 불교가 결합된 민화도 전하는데 그 예로 사명대사도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사명대사도를 살펴보면 가사를 입은 사명대사 얼굴 양 옆으로 붉은 해와 흰 달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붉은 해는 일광보살을 흰달은 월광보살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사명대사가 쓰고 있는 관은 조선 사대부들이 집에 머물때 쓰던 관모의 형태이다. 삭발을 해야하는 스님이 어떤 연유에서 사명대사가 양반들의 일상 관모인 정자관을 쓰고 책을 읽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스님의 유교화 정도로 해석해 보면 어떨까 한다.



[도 11] 〈사명대사(四溟大師)〉, 紙本彩色, 79×47cm, 가회민화박물관.

마지막으로 그림인 유교 불교 기독교의 인물들이 모두 그려진 만법통일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석가와 공자와 예수 등 3대 종교의 창시자가 그려진 이 그림에는 각 인물 위에 그들의 이름과 대표적인 종교 교리를 한 단어씩 적어 넣었다. 불교를 대표하는 석가는 '자비(慈悲)'를, 유교를 대표하는 공자는 '인의(仁義)'를, 기독교를 대표하는 예수는 '박애(博愛)'라고 적었다. 자비와 인의와 박애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파악한 세 종교의 교리라고 생각된다. 세 인물은 한눈에 봐도 '삼교(三敎)'의 대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면적인 특징을 잘 드러나게 했다. 석가는 한쪽 어깨가 드러난 가사를 걸치고 팔을 가슴 앞에서 구부렸다. 머리는 위로 솟은 육계와 구불구불한 나발의 특징을



[도 12] 작자미상, '만법통일', 한국, 종이에 색. 74×46㎝. 가회민화박물관)

잘 살렸다. 공자는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아 홀을 들고 있고 아랫부분에 수가 놓인 의복을 걸치고 있다. 이는 공자의 초상화로 가장 많이 알려진 선성유상(先聖遺像)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예수는 의복으로 온몸을 감싼 채 두 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습이다. 예수가 손을 들어 설교하는 모습은 산상수훈이나 예수상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다. 세 사람의 머리에는 모두 둥그런 형태의 두광(頭光)을 그려 넣었다. 머리에서 광채가 난다는 의미다. 두광은 불교 그림에서 불보살을 그릴 때 쓰는 양식인데 삼교도에 활용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예수가 함께 서있는 석가와 공자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강의하듯이 몸을 돌려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다.

그림의 제목은 현재 '만법통일'이라 불리우지만 그림 안에는 제목이 적혀 있지 않아 확실한 제목은 알 수 없다. 일단 여차한 경위를 통해 만법통일도라 이름 붙은 본 그림은 불교, 유교, 기독교가 공존하는 화면을 구성했으므로 만법통일이라는 제목은 과히 나쁘지 않다. 만법통일은 당나라 때 '뜰 앞의 잣나무'와 '차나 한잔 하고 가라'는 일화로 유명한 선승 조주(趙州) 선사가 말한 '만법귀일(萬法歸一) 일귀하처(一歸何處)'를 출처로 하고 있고, 그림의 제목은 이를 응용한 듯 하다. 즉 '모든 것은 하나로 회귀되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라는 의미로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로 귀결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결국 그림에서 보이는 유교 블교 기독교의 대표들이 각자의 종교에서 추구하는 법이나 교리가 결국 하나로 귀결될 수 있는 우주적 보편성의 의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해 본다.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인 조선 말기에 도교는 불교나 유교와 상당히 융합되어 있는 상태였고 종전의 삼교로 지칭되던 유교, 불교, 도교에서 도교의 자리를 기독교가 차지한 셈이다.

즉 당시 민중들의 생활속에 이미 기독교는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고 민중들은 기존과는 교리를 지는 기독교를 통해 새로운 신앙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융합된 새로운 생활 신앙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만법통일도가 제작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이 그림이 그려질 조선 말기 탄생한 동학(천도교), 증산교, 원불교의 탄생을 살펴보면 필자의 이러한 추측이 전혀 근거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림이 그려질 조선 말기 등장한 동학 증산교 등의 신종교세 주장한 삼교합일(三敎合一)에서도 외래 종교였던 그리스도교까지 수용하자는 움직임이 추가된 바 있다.

지금까지 삼교통합을 설파한 성명규지 민화 도판의 민간 유입과 연계하여 유불도의 각종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민화작품을 살펴보았다. 성명규지의 민간 유입과 유불도 민화의 관련성으로 가장 개연성이 있는 것은 기존에도 다소간 존재했던 도불습합에 더해 유교까지 삼교가 합일할 수 있는 의식이 매우 고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의식의 진전이 불교와 유교의 혼재, 혹은 유불도가 융합된 민화의 제작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만법통일도 같은 경우는 한단계 더 나아가 외래 종교와 불교와 유교가 함께 통합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신앙적 교리 통합의 중요성은 민중들의 정신세계의 합일이다. 정신세계의 합일이란 무엇인가? 정신력이 분열되지 않아 힘을 모을 수 있고 분열과 차별과 다툼이 없는 이상적인 정신적· 물적 세계를 창조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민간에서 형성된 새로운 신앙에 대한 염원은 유불도 합일, 근대 사유의 수용, 민중 운동적 양상의 성격을 가진 동학과 증산교 탄생의 토양과 양분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4. 소결

이상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유입된 명대 내단서 성명규지와 성명규지 삽화의 민화 제작, 유불도의 내용을 함께 담은 민화를 단초로 도교를 중심으로 한 민간의 종교적 경계의식 해체 양상과 새로운 민간 생활 신앙을 염원한 조선 말기 사회 문화의 단면을 살펴보았다.

유불도 합일의 내용을 담은 내단서 성명규지의 내용이 도상을 통해 민간으로 전파되고 이러한 도상은 민중들에게 저간에서 진행되고 있던 도교와 유교, 불교의 경계의식 해체를 가속화 시키지 않았나 생각된다. 19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 불, 도교와 관련된 몇 점의 민화작품은

유교, 불교, 도교의 요소들이 함께 융합되어 있고 심지어는 조선 후기 유입된 기독교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유불도와 관련한 복합적인 내용을 담은 민화 제작 배경의 원인을 당시 민간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생활 신앙 탄생의 소망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며, 유사한 시기에 탄생한 신종교인 동학과 증산교, 이어서 원불교의 교리를 근거로 당시 민간에서 발생한 이러한 종교 의식 해체의 양상이 신종교 탄생의 토양과 양분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해 보았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유불도 합일, 근대 사유의 수용, 민중 운동적 양상의 성격을 가진 동학과 증산교와 같은 신종교 탄생의 배경과 관련하여 민간에 발생한 다양한 의식 변화 양상을 포괄적이고 심도있게 고찰하여 더욱 명확한 원인을 탐구해 보는 일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서적]

『東國輿地勝覽』

『五洲衍文長箋散稿』

『瓛齋集』

[단행본]

강판권, 『역사와 문화로 읽는 나무사전』, 글항아리, 2010.

겨레그림, 『꿈과 현실의 아름다운 동행』, 온양민속박물관, 2008.

김낙필, 『조선시대의 내단사상』, 대원출판, 2005.

김취정, 「그림 속 복숭아꽃의 상징체계」, 『월간민화』 4, 비주얼, 2018.

김태곤, 『한국의 무속』, 대원사, 1989.

_____, 『한국의 무신도』, 열화당, 1989.

서유구,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보양지』 1-3, 풍석문화재단, 2020.

윤진인의 제자 저, 이윤희 옮김, 『성명규지』, 한울엠플러스, 2005.

李能和, 李鍾殷 譯, 『朝鮮道教史』, 普成文化社, 1989.

정병모, 『그림으로 만나는 한국의 무신』1,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2004.

정재서,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이화여대 출판부, 2006.

최준식,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2, 사계절, 2006.

[논문]

—한국—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와 민간신앙의 공존 양상—산신・칠성 신앙의 불교화」, 『불교학연구』 61, 불교학연구회, 2019.

김윤경, 「조선후기 민간도교의 발현과 전개」, 『한국철학논집』 35, 한국철학사연구회, 2012.

_____,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도교관 「도장총설」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53, 한국도교문화학회, 2020.

김진봉, 「『性命圭旨』에 나타난 性命雙修論」, 『동양문화연구』 13, 영산대 동산문화연구원, 2013.

양은용, 「조선시대 수련도교의 전개와 양생사 연구」, 『한국종교사연구』 40, 한국종교사학회, 1996.

조인수, 「조선시대 도교와 민간회화」, 『한국민화』 7, 한국민화학회, 2016.

최일범, 「조선시대의 내단사상」, 『철학연구』 49, 철학연구회, 2000.

_____, 「조선성리학에서 양생(養生)과 수양(修養)」, 『도교문화연구』 42, 한국도교문화학회, 2015.

—중국—

唐大潮, 「試析 性命圭旨 的 三教觀」, 『宗教學研究』3, 四川大学道教与宗教文化研究所, 2003.

傅鳳英, 「淺論性命圭旨的作者和成書年代」, 『宗教與民族』3, 四川大學道教與宗教文化研究所, 2004.

【Abstract】

The Aspiration of New Life Religion in the late Joseon Period

Sim, Myoung Joo*
Kim, Chwi Jeong**

This paper explores the aspiration of new life religion form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based on the religious folk paintings (Minhua, 民畵). Several religious folk paintings, which are estimated to be producedin the mid of late 19th century, show combination of various religions contents like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As a starting point of that kinds religious folk paintings, this paper focused on *the Xing Ming Gui Zhi* (性命圭旨), is a sacred book of Ming Dynasty on the Taoism which integrates three religions;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The book not only includes the popular discipline of training Nai Dan (內丹), but the paintings in the book had been copied as folk paintings in the late Choson. In order to discussing the influences of the book on the civilian's religious conception, this research also examined the blurred religious boundariesamong the people.

At the same time, examination of several folk paintings which indicate the dismantling phenomenon of various religions, shows the changes in the religious consciousness. The transformed religious conception began in the Scholar official society, which had been deepened into the aspirations of life faith at the civilian level. It is thought that the aspiration became a basis for the birth of late Choson's New religions like Donghak (동학) and Jeongsan Gyo (증산교) which have features of unification of three religions, the acceptance of modern thought, civil movement.

Keywords: *the Xing Ming Gui Zhi* (性命圭旨), Integration of three religions, Minhua, Religious painting, New Life Religion.

접수일: 2023.03.30. ‖ 심사일: 2023.04.17. ‖ 게재확정일: 2023.05.30.

* First Author / Adjunct professor, Liberal Arts College, National Yang Ming Chiao Tung Univ.
** Co-Author / Instructor, Korea Univ.